

다니엘서 - 제44번

잃어버린 토대의 베일을 벗기다: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진리와 재림주의의 마지막 날들

Jeff Pippenger
2024-01-08

윌리엄 밀러의 기초 진리들은 재림운동의 네 세대에 걸쳐 가려져 왔다. 그 기초 진리들의 회복은 그의 두 번째 꿈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성경과 예언의 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이 이루어야 할 사역으로 거듭 확인된다. 밀러의 꿈은 먼지술을 든 사람이 보석들을 회복할 때 그것들이 태양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밝힌다.

밀러의 체계는 이교주의와 그 뒤를 이은 교황권이라는 두 가지 황폐케 하는 권세를 인식하는 데 기반을 두었으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증언은 그의 체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거기서 바울은 이교 로마가 제거될 때까지 교황권의 대두를 억제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은 또한 Future for America의 체계를 위한 근거도 제공했는데, 그 장의 "불법의 사람"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자신을 높이는 왕으로도 나타나 있다고 식별했기 때문이다.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증가는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바울이 한 증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798년의 끝의 때에, 그리고 1989년에도,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고, 이로써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시험 과정은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두 부류의 예배자를 드러낸다. 끝의 때의 지식의 증가와 관련하여 바울의 글을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장에서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그 강한 미혹은 지식의 증가를 거절하는 악인들에게 다니엘서 12장에서 임하는 것이다. 두 역사 모두에서 그 강한 미혹은 가장 직접적으로 재림주의를 가리킨다.

겉모양 아래를 보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큰 빛을 받아 온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영적 상태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놀라지 아니한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다. "나도 그들의 미혹을 택하여 그들의 두려워하는 일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려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고," "불의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 66:3, 4; 데살로니가후서 2:11, 10, 12.

하늘의 교사께서 물으셨다. "당신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받으신다고 가장하면서, 실상은 세속적 방침에 따라 많은 일을 행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강한 기만이 무엇이었는가? 아, 한때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그 정신과 능력으로 오인할 때, 자신들은 부요하여 재물이 풍부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처지에 있을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참으로 큰 기만이요, 사람을 현혹하는 미혹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그분의 충실한 종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외치고 있는 동안, 홀연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고백으로 마음을 낮추고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열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부유하여 재물이 풍부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며 더 이상 안일히 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진실로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금은 불 가운데서 단련되었고, 우리의 옷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우리의 교사께서 이른바 의의 옷들을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것들을 벗기시고, 그 아래에 있는 더러움을 드러내셨다. 그때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얼마나 허식적으로 그들의 더러움과 썩은 품성을 가려 왔는지 네가 보지 못하겠느냐?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간 곳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있으며, 힘이 결핍되어 있다.’” Testimonies, volume 8, 249, 250.

재림운동은 1844년에 ‘한밤중 외침’을 선포했을 때 ‘신실한 성읍’이었다. 1863년에 이르러 그들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기초’를 거절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기초적 진리들을 제쳐두고 그 위를 위조된 보석과 주화로 덮어 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기초를 놓고 있었다. 그 일을 시작하고 수행했으며 지금도 계속하는 자들은, 예언의 신의 기록에서는 ‘큰 빛을 받은 자들’로 묘사된다.

그들이 한때 가졌던 “큰 빛”은 밀러의 꿈에서 보석함 속의 보석들로 표현되었는데, 밀러는 그것들을 자기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것들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다.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화이트 자매는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면서도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지목한다.

그들은 1863년에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것을 “한때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착각할 때, 또 자신들이 부요하고 재산이 늘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필요한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미혹”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라오디게아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것이 1856년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 후 그들은 7년 동안 시험을 받았으나 1863년에 그 시험에 실패했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강한 미혹을 가져오는 잘못된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다. 데살로니가서에서의 바울의 경고는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 모두를 위한 닳이 되며,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루는 밀러의 꿈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의 꿈은 본래의 진리의 보석들을 회복하는 일이 완수되면, 그 진리들이 재림운동의 시작에 한밤중 소리 때 처음 빛났을 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밝힌다. 어떻게 해서 밀러의 이해가 그가 처음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보다 지금 더 밝게 빛날 수 있는가?

하박국 2장의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나타나 있다. 그 진리들은 밀러의 꿈에서, 마지막 때, 한밤중 외침 직전에 최종적으로 회복될 보석들로 표현되었다. 밀러의 꿈에서 창문 밖으로 들려 나가는 가짜 보석들은 재림운동 안으로 들어와 거짓 기초를 만들고 참된 기초를 숨기게 한 거짓 교리들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거짓 기초를 이루는 거짓 교리들을 놓아 버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낸다. "the daily"는 원래의 기초를 세운 윌리엄 밀러의 진리 체계의 닳이었고, 마지막 때에 "the daily"는 밀러가 정확히 규정한 대로 이교만을 상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 기초를 낳은 반역의 상징이기도 하다.

성경과 예언의 영, 그리고 역사는 모두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심판의 때의 외침이 윌리엄 밀러가 발견하고 제시한 메시지의 선포였음을 증언한다. 그래서 그 운동을 밀러주의 운동이라고 부른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운동을 거부하는 것은 1798년에 생겨난 빛, 곧 다니엘이 지식의 증가라고 지목한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을 말하며, 그 술 취한 자들을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한다. 이사야는 그들이 실제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에 취해 있음을 밝힌다. 성경에서 영적인 포도주는 문맥에 따라 참된 교리이거나 거짓 교리를 뜻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거짓 교리, 곧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7장의 두로의 창녀와 연회를 벌이던 마지막 밤의 벨사살로 상징된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술취함의 결과를 지적했다.

멈추고 놀라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라. 그들은 포도주 때문이 아닌데도 취하고, 독주 때문이 아닌데도 비틀거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부어 너희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곧 예언자들과 너희 지도자들, 선견자들을 가리우셨다.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과 같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그 책을 학식 있는 자에게 건네며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는 "나는 읽을 수 없다. 그것이 봉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그 책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 건네며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는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규례로 배운 것뿐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리니, 참으로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총명이 숨겨질 것이다. 깊이 숨어 여호와에게서 그들의 계략을 숨기려 하며,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일을 행하고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참으로 너희가 사물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구나! 어찌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겠느냐?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9-16.

화이트 자매는 이 구절들을 인용한 뒤 이렇게 덧붙인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정직히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참된 의도를 숨기고,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타락한 천사와 교제를 계속한다. 원수는 어둠 속에 반쯤 있는 이들을 속이는데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 준다. 어떤 이들은 만연한 어둠에 물들어 진리를 제쳐 두고 오류를 택하고 있다. 예언이 지목한 날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 땅의 역사의 이 시점에 많은 이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행한다. '스스로 멈추고 놀라라; 외치고 또 외치라;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도 취하였고, 독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도 비틀거린다.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부어 너희 눈을 감기셨다. 선지자들과 너희 관원들, 선견자들을 그가 가리셨다.' 자기들이 높임을 받을 백성이라 여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취함이 임해 있다. 그들의 종교적 신앙은 이성구가 묘사하는 그대로이다. 그 영향 아래에서 그들은 똑바로 걷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로에 굽은 길을 낸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과학을 내세운 책략가들이고, 맑은 영적 시력을 가졌기에 도울 수 있었고 마땅히 도왔어야 할 이들까지도 스스로 미혹되어 악한 일을 떠받치고 있다.

말세의 전개는 곧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러한 심령술적 기만이 그 본모습, 곧 악령의 은밀한 역사임이 드러날 때,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규례로 배운 바 되었으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리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주로부터 그들의 계책을 깊이 숨기려 하고, 어두운 데서 그들의 일을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진실로 너희의 뒤바꿈이 토기장의 진흙 같이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그에게 명철이 없었다' 하겠느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도 바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왔고 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내게 보여진다. 큰 빛과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지도자들은 주께 크게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신을 원수의 대열에 세웠다. 세상은 그럴듯한 궤변으로 범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궤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할 터인데, 그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증거를 거짓으로 바꾸어 온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본래 장차 회계해야 할 자로서 영혼들을 살피는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있어야 했다. 그들은 전투의 무기를 내려놓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아무 효력 없게 만들고 그의 경고와 책망을 제쳐놓으며, 분명히 사탄의 편에 서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영적 취함이 이제 독한 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비틀거리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임했다. 범죄와 비리, 사기, 기만, 불공정한 행위가 하늘 궁정에서 반역한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사탄의 교활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거짓을 사랑하고 만들어 내는 자와 연합할 것이다. 나는 우리 백성에게 경고한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Battle Creek Letters, 123-125.

이사야와 화이트 자매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림주의 지도자들은 "확실히 사탄의 편에 서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한 예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심령술적 기만들이 그 실체—악령들의 은밀한 역사—로 드러날 때,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은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역사에서 그들의 취함이 "악령들의 은밀한 역사"로 드러나는 그 시점에, 재림주의 지도부는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의 사업에 대한 봉인이 풀린다. 그 봉인 해제는 밀러의 꿈에서 보여졌는데, 밀러가 기도하자 문이 열렸다. 그것은 그가 잠시 눈을 감기 직전에 일어나며, 이는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 과정의 맨 끝을 가리킨다. 문이 열리는 것은 경륜의 변화를 나타내며, 그 시점에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된다.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본래 "신실한 수호자로 서 있었어야 했던"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악한 일을 요약한 부분이 있다. 그 요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참으로 너희가 사물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 토기장의 진흙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음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는 지음을 받은 것이 그것을 빚은 이에게, 그는 지각이 없었다고 말하겠느냐?'"

밀러가 'the daily'의 정체를 이교 신앙 또는 이교 로마로 규정한 것은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과 이교 로마가 모두 용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은 일차적으로 사탄을 나타내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The Great Controversy, 439.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고,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이들은 만연한 어둠에 물들어 오류를 택하여 진리를 제쳐두고 있다. 예언이 지적인 그 날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화에 불과하다." 1901년에, 독일 출신의 한 재림주의 지도자가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관해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견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견해는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나타낸다고 보거나, 그러한 생각의 변형을 주장한다. 내가 '변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1901년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거짓 주장에 서로 다른 강조점들이 부여되어 왔기 때문이지만, 그 그릇된 견해들은 언제나 'the daily'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드러낸다.

말세의 재림주의에서는 밀러가 사탄의 상징으로 규정했던 "the daily" 교리라는 보석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 견해가 1901년에 제시되었을 때, "the daily"가 사탄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는 극히 적었지만, 1930년대에 이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광맥에서 밀러가 캐낸 "the daily" 교리라는 보석은 1863년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거절되었던 것처럼 거절되었다. 1863년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역사 어딘가에서 재림주의의 지도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바뀌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처한 위험을 보고 있으며 다시 묻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을 위한 곧은 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더욱 간절히 호소하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을 인도자로 바라보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라.

"마음의 완고함을 방치하고, 교만과 자기 의로 인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 내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잘못을 드러내 주실 때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당신은 같은 자리를 거듭 밟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비슷한 성격의 실수를 계속 저지르도록 내버려지고, 지혜가 계속 부족할 것이며, 죄를 의라 하고 의를 죄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팽배할 수많은 미혹이 당신을 에워쌀 것이며, 당신은 지도자를 바꾸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2월 16일.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 곧 "신뢰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의라 하고 의를 죄라 부르며", 또 "참으로 너희가 사물을 뒤집어 놓는 것이 토기장의 진흙과 같이 여겨질 것이니,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겠느냐? 또는 지음을 받은 것이 그것을 만든 이에게 '그는 총명이 없었다'고 말하겠느냐?" 아드벤티즘의 네 세대를 거치며 진행된 반역 속에서, 신뢰의 직분에 있는 자들은 지도자를 바꾸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오류에 대한 증거를 점진적이고 일관되게 거절해 왔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점진적 반역 가운데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는 사라지고, 그들의 신중한 자들의 명철은 감추어질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죄를 의라 하고 의를 죄라 할 것이다. 이 반역의 상징은 "the daily"라는 교리인데, 그것은 밀러에게는 사탄의 상징이었고, 오늘날 재림주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한때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적용의 틀을 세워 준 닷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의 술 취함을 상징하는 표지가 되어 버렸다. 다니엘서에서 "the daily"와 관련된 상징은 재림주의의 시작 무렵, 그것이 밀러의 상자에서 인식되었을 때 태양처럼 밝게 빛났으나, 마지막 날들에는 그 진리가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숫자 열은 시험의 상징이며, 고대 이스라엘에게 열 번째 시험은 최종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탄적 세력"의 소행으로 "귀속"시켜 왔고, 이교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규정해 왔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훼방하였다. 그들의 언변은 온 세상의 구속주를 모독하는 데 사용되었고,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말을 하늘의 책들에 기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탄의 세력의 소행으로 돌렸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인할 수도, 그것을 자연적 원인으로 돌릴 수도 없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들은 마귀의 일이다." 불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낱 인간이라고 말했다. 그들 앞에서 행해진 치유의 역사, 어느 누구도 한 적도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세력과 결탁했다고 비난했다. 완고하고 음울하며 쇠처럼 굳은 마음으로, 그들은 모든 증거에 눈을 감기로 결심했고, 이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원고 발표집, 4권, 360쪽.

첫째 천사의 운동 가운데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에 대한 우리의 고찰을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